**선한 목자의 길**

**<요한복음 10장 11-18절>**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5월 18일, <제 34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신군부 세력의 퇴진,’ ‘게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광주시민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실행한 ‘5.17비상게엄전국확대조치’에 항거하였고, 이를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일에 걸친 이 항쟁의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후유증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에 달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신군부 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제5공화국 정부는 이 사건을 “불순분자들이 체제전복을 기도한 사태”로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다 1988년 이후 이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오늘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로서,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예수님”에 관한 본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야 할 참된 리더십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의 결정적인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양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삯꾼’입니다. 삯꾼이란 돈을 받고 양치는 일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삯꾼도 삯꾼 나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는 사나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여차하면 그날 삯 안 받으면 되지, 남의 양들 때문에 제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삯꾼의 무책임성이 낳는 결과는 심각합니다. 이리는 마음놓고 양 한 마리를 물어갈 것이고, 나머지 양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자 잃고 헤매던 양들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른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두 성경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릇 행하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돌아와 오직 그분만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리더십이며,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그분의 길을 따르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1980년 5월 신군부 세력의 추악한 리더십은 수많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짓밟았고, 2014년 4월 세월호 선장, 해경 지도부, 국가 위정자들의 이즈러진 리더십은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승객들의 생명줄을 어이없이 끊어버렸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그 잘못된 리더들에게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참된 리더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참된 리더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나아갈 길을 바로 비추고 바로 이끌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보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알고 또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본문 14-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압니다. 그들 각각의 이름을 다 알 뿐 아니라 각각의 습성도 잘 압니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잘 아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의 양들 역시 자기 목자를 잘 압니다. 목자가 언제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기에 지금 다가오는 것이 강도인지 목자인지 바로 알아챕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에 목자의 뒤는 잘 따르지만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도망합니다. 이렇게 자기 양에게 잘 알려진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절대 아무렇게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시23:3)을 걸고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을 아셨고 또 사람에게 알려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알아가신 방식과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방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아실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하는 말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기에 그를 확대하거나 축소함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가 상종하기 싫어하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식사를 함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을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부딪혀 아시고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실 때 그분을 떠받드는 다른 이들의 말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에,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기호대로 만들어 놓은 좁은 틀 안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관된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앞서 걸어가셨고, 그런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알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따르는 이들은 물론 아직 그분을 모르는 이들마저도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알고 또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영향받기 쉽고, 또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한 사람을 쉽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른 상황에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가 악하고 위선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보인 삭개오의 모습을 두고 어찌 위선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쉽게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부분이 더 온전히 꽃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일은 상대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부딪혀 알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알 수 없기에, 일단은 그 말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관된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 앞서 걸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짓된 의도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의도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려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 안에서 희생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7-1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쉬웠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의 처절한 기도가 보여주듯,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예수님께도 분명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18절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선택권은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에게서 강제로 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오직 그분의 권세로, 자진해서 그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즉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모두 성자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하여 걸어가신 길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걸어가야 할 길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가정이든 사회든 리더의 희생 없이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 가능할까, 새삼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들을 그동안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의 심각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들의 길을 답습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자기부인’을 요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그렇게 죽은 한 알의 밀알로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희생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세상을 위한 희생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누구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 은혜,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부활의 신앙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여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생명의 말씀들을 견고히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선한 목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 앞서 가시며 우리를 당신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한 ‘선한 목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내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 뿐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뭐 거창하게 세상을 한 순간에 뒤집어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확대하거나 축소함 없이 있는 그대로 알고자 노력하고 또한 사랑하려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 안에서 세상을 위한 희생의 삶을 스스로 결단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 시대이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세상은 매우 궁금해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길’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당신 가신 선한 목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부활의 신앙 안에서 희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세상에서 선한 목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선한 목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